

국민 10명 중 9명 건설 혁신 필요성에 공감, 성장 가능성도 부정적 의견보다 2배 높아

노후 시설 개량과 안전 관련 재정투자 확대 찬성 85%, 구조조정 찬성 64%

최 석 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 sichoi@cerik.re.kr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산업 혁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중순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 뱅크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한 국민은 350명이며,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의 주요 특징은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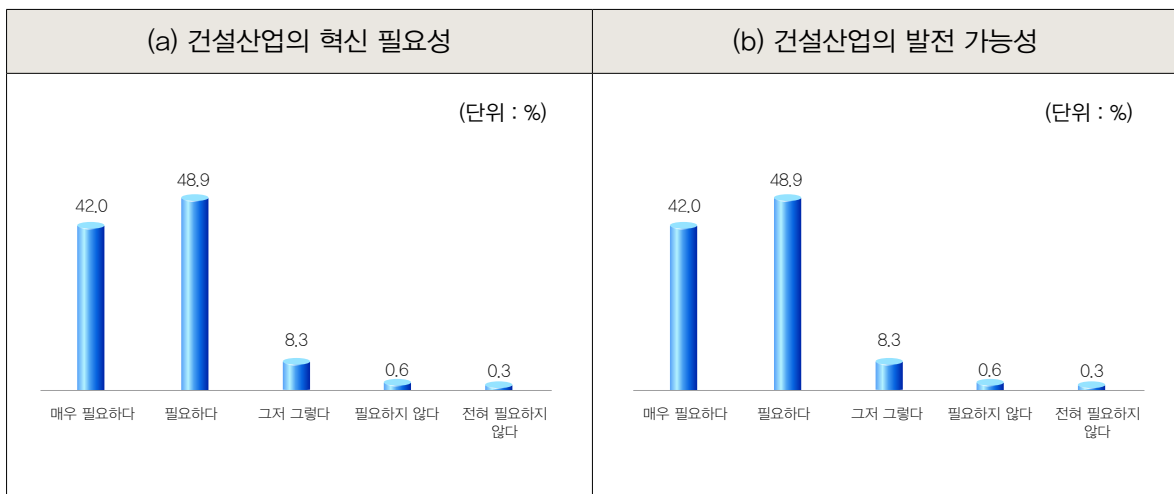
<표 1> 응답자 특징

지역	서울(37.7%), 인천(29.7%), 경기(32.6%)
연령	20~30대(19.1%), 30~40대(19.1%), 40~50대(23.1%), 50~59대(22.9%), 60~70대(15.7%)
성별	남자(50.6%), 여자(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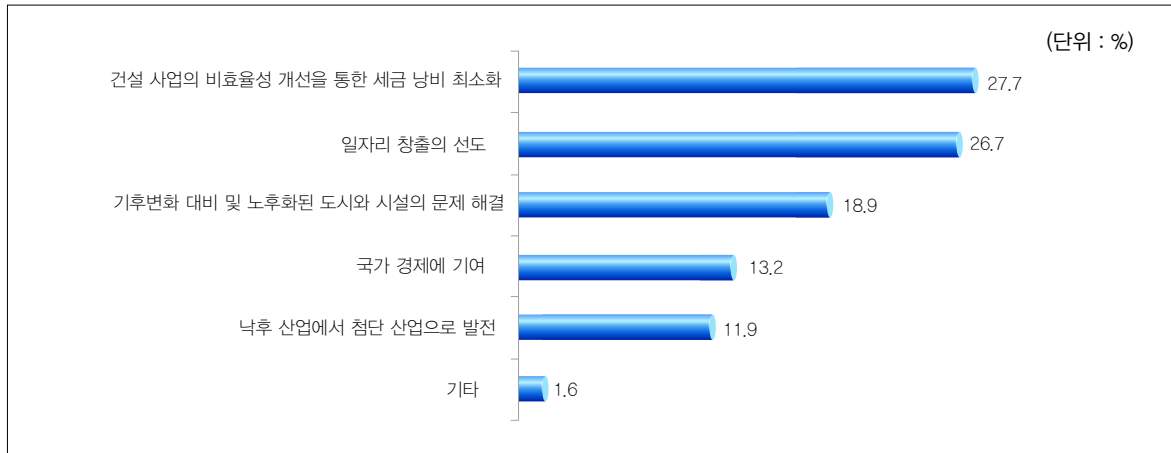
건설산업의 혁신 방향

건설산업의 혁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다(그림 1(a)) 참조). 필요 이상으로 답변한 응답자는 90.9%였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0.9%에 불과하였다. 향후 건설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하여 발전하지 못할 가능성(24%)보다는 2배 정도 높게 조사되었다. 건설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보다는 부족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일반 국민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산업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의 비효율 개선을 통한 세금 낭비 최소화'(27.7%), '일자리 창출 선도'(26.7%)를 가장 높게 거론하였다(그림

<그림 1> 국민이 생각하는 건설산업의 혁신 필요성과 발전 가능성



〈그림 2〉 국민이 생각하는 건설산업의 혁신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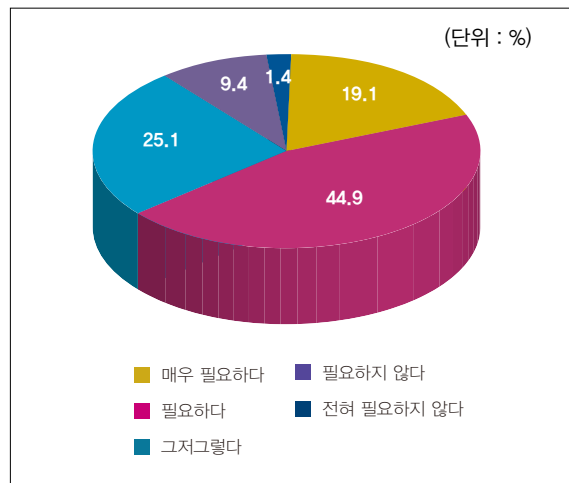


2) 참조).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비 및 노후화된 도시와 시설의 문제 해결’(18.9%), ‘국가 경제 기여’(13.2%), ‘낙후 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11.9%) 순으로 집계되었다. 본 조사에서 강조된 건설산업의 비효율성 개선과 일자리 창출은 향후 건설산업의 혁신 방향성 설정에 주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비효율성 제거는 산업 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은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노후화된 도시와 시설에 대한 문제 해결 역시 건설산업이 앞으로 주력해야 할 영역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 중 시급한 분야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안전을 강조하였다. 세부 역할에 대해서 응답자의 29.7%가 ‘재해/재난 대비 안전 확보 및 하자 등 문제 해결’을 꼽았다. 참고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5년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당시 도시와 시설 안전에 대해 서울시민은 방재시설의 불충분(78.4%), 성능에 대한 불만족(35.1%), 투자 수준에 대한 불만족(57.2%) 등을 피력한 바 있다.

여타 ‘사용자 불편 최소화(급속 시공, 교통 불편

〈그림 3〉 국민이 생각하는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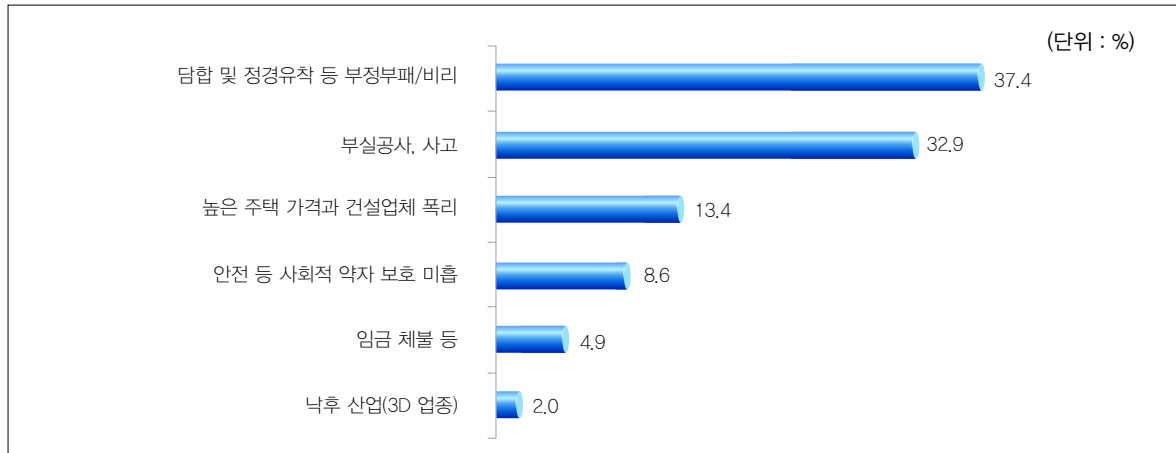


최소화 등), ‘첨단/편의/친환경성이 확보된 시설의 공급’, ‘해외건설 수출의 확대’, ‘선진화된 사업 환경(담합 등 문제 해결)’ 등은 약 10% 수준으로 대동소이하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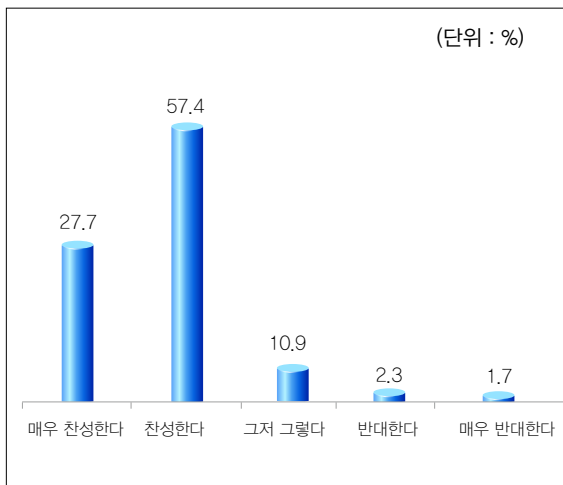
건설산업의 구조조정과 이미지 개선

인력 감축, 업종 조정 등 건설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응답한 국민들의 64%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 참조). 반대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0.9%에 불과하였다.

〈그림 4〉 국민이 생각하는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그림 5〉 노후 시설 개량과 안전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자 확대에 대한 의견



이와 함께 건설산업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그림 4〉 참조). 일반 국민은 건설산업의 ‘담합 및 정경 유착 등 부정부패/비리(37.4%)’와 ‘부실 공사 및 사고(32.9%)’를 가장 나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높은 주택가격과 건설업체 폭리(13.4%)’와 ‘안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미흡(8.6%)’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노후 시설 개량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5〉 참조). 이 결과는 2015년 실시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찬성 64.7%)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참고로 이 조사에서는 재정의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있다. 서울시민은 재정 확충 방법으로 민간 투자 확대(찬성 41.4%)나 공공 사용료 현실화(찬성 44.4%)보다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확충(57.6%, 64.7%)을 더욱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맺음말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의 경우 유추할 수 있는 국민적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다. 건설산업은 아직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산업으로 건설산업 혹은 사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건설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회 안전망 확보의 기반이 되는 도시 및 기반시설에 대한 건설산업의 능동적 역할 기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정경 유착, 부실 공사 등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 국민들의 요구 사항은 앞으로 있을 건설산업 혁신 활동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5년 뒤의 대국민 조사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 **END**